

지역 매 아리



정읍장학숙, 정읍시민장학재단 김순희 명예이사장 초청 특강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장학숙은 지난 9일 저녁 정읍장학숙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 김순희 명예이사장을 초청해 멘토·멘티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김순희 명예이사장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학업에 정진하는 지금을 잊지 말고, 훗날 후배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지 찾아와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나누자."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날 특강에서는 정읍장학숙 입학생 95명 전체에게 개인당 장학금 100만원씩(총 9,500만원)을 9월중에 전달할 뜻을 내비쳤으며, 장학금 내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입학생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순희 명예이사장은 정읍장학숙 건립 기금 1억원, 정읍장학숙 집기비용 7억원, 정읍 구절초테마공원에 해당정 건립, 꽃바람 순정문, 꽃바람 아가상, 용수천 조각상 등 총 20억원을 지원하여 구절초공원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 건전한 음주·건강관리 특강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직무상 파오 및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동행테마로 추진 중인 '절제된 음주와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초래된 예가 대부분으로 개인 음주습벽 등에 대하여 외부의 개입과 강한 처벌 경고등으로는 비위 근절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어 부안군 보건소와 협조 전문강사를 초청 자율적으로 참석한 3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종량제 홍보 무단투기 집중단속 연중 시행

정읍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동단지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불법투기 전담단속원 2명을 채용,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단속과 홍보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배출방법 등을 입주자에게 안내토록 하여 시가지 환경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음식물쓰레기 등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담배꽂이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이

다.

종량제 규격봉투 외 비닐봉지를 이용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 시 20만원(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환경 가꿔 나가는 데 시민 스스로 불법투기 근절 및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운을 주는 미산딸 공원'

고창 부안면, 3×4 형태 배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고창군 부안면이 면 소재지 초입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 명성에 걸맞게 행운을 상징하는 미산딸 공원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공원은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수목이 맞닿아 서로 자람을 방해하고, 여러 종류의 수목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부안면은 공원 속에 숨어있던 가이 스키장나무 등을 부안면 풋살장으로 이식해 조경용으로 활용하고, 호랑가시나무와 배롱나무의 위치를 옮겨 배치했으며, 숫자의 함축적 의미를 담아 미산딸나무 일곱주와 금목서나무 한 주를 새로 식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산딸나무는 3×4 형태로 배치하여 숫자적 의미인 안정과 조화, 그리고 완성과 완전한 지역을 지향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3과 4가 더해진 7은 부안면에 행운이 항상 함께하라는 마음과, 미산딸공원을 보고 가는 모든 사람들 또한 행운을 틈틈이 받기를 바란다는 뜻을 함께 담았다.

같이 심은 금목서나무는 일명 만리항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미산딸공원의 행운이 만방으로 널리 퍼져 나가는 의미가 있다.

배기영 부안면장은 "미산딸나무는 성목이 개화하는 시기가 되면 그 아름다움에 취해 한참 동안 보고 가야만 되는 나무이고, 가을에 빨강게 물드는 단풍 또한 볼거리를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향후 미산딸나무가 성목이 되었을 때 이 공원이 부안면을 넘어 고창군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귀농·귀촌은 부안으로"

군농기센터, 2018년 귀농귀촌 교육 9기 수료식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귀농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안군 귀농·귀촌교육 9기 수료식이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

부안군 귀농·귀촌교육은 지난 3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월 간 20회 차 122시간에 걸쳐 귀농·귀촌 정책방향에 비롯한 농업 기초기술 교육, 작목별 영농교육,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전략, 농업의 6차 산업화 이해, 선도농가 견학 등이 실시됐다.

특히 9기 부안군 귀농귀촌 교육은 50명의 수료생과 19명의 이수생을 배출하여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교육생 대표 김석호씨는 "부안으로 귀농을 결심하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교육 수료 후에도 9기 교육생 단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부안군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함께 수도권 귀농학교 등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난 10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교육 9기 수료식을 가졌다.

정읍시농기센터, 명품 고추 생산 영농현장 지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현)는 고추 주산지로서의 명성회복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가 맞춤형 영농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잦은 강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탄저병 발생이 평년보다 일찍 나타났으며, 고추 탄저병은 제때에 방제하지 못하면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유효성분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또한 고추를 수확 할 때에 탄저병에 감염된 고추도 같이 제거해야 다른 고추로 병원균이 옮겨가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바이러스 인한 고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진딧물과 총채벌레에 의하여 옮겨지므로 이들 해충이 외부에서 고추

밭으로 날아오는 5~6월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야 바이러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이 고추 전체에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한번에 1~2 이랑씩 살포하는 것이 3~4 이랑을 여러 번 방제하는 것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분무 방향은 아래서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

고추 생육 후기까지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추를 심은 후 30일 간격으로 밀칭 비닐에 10cm 깊이의 구멍을 뚫고 질소와 칼리 성분이 들어 있는 비료를 반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 흙을 덮으면 된다.

또한 가뭄이 지속되어 토양 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나과, 기형과, 갈슘결핍 증상 등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대비하여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폭우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제도 운영

정읍시는 지난해 8월부터 투명하고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종이계약서 및 도장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처리해 해당 행정기관

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거래가 한층 편리해졌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인증증서 등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더불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선규 정읍시 종합민원과장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법령 적시성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 구축으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위임법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

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38건(조례24, 규칙14) 62개 조문에 대하여 입법예고,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규칙 14건은 공포하였으며 조례 24건은 의회제출하여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